

농업계 동향

농식품부, 식품안전문제대응강화방침

최근 캐나다의 메이플 리프사(Maple Leaf Foods)가 생산한 쇠고기·칠면조 고기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고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어 최소한 1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월 중순 우리나라에서도 색소를 첨가한 수입 다진 양념 165톤을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되었다. 수입 제품에 이용된 “홍국 적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불량고추 혼입 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산 유제품에서 공업용 화학원료인 멜라민이 발견되어 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증폭되면서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2일 농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를 강조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법령과 제도, 조직, 인력 구조 등을 개편하여 상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부처 내에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22일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회수, 안전정보 공개,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식품표시제 강화, 식품제조업소 안전관리 강화, 제조업자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당정합동 식품안전+7」대책을 발표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농어촌에도 「뉴타운」이 조성된다.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녀교육 및 복지, 영농기반, 친교기반 등의 미비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① 맞춤형 영농어지원 프로그램 ②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③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어업 인력육성지원 종합프로그램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금년 11월말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입지여건, 토지확보 및 입주수요확보 가능성, 입주자에 대한 영농어교육 및 지원, 자녀교육·복지여건개선 등 지원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농어촌 뉴타운」은 사업시행주체(시·군)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농림수산사업 및 관계부처 관련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연계 지원하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역량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교육 및 창업자금,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는 보육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시 우선 배려토록 할 계획이며,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

려, 단층 또는 복층형의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농어촌 뉴타운 조성하여 젊은 인력 확보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어촌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 전략」확정

정부는 9월 10일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인「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하였다.

2008년 3월 논의된「창조적 광역발전」전략(안)은 세계화·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여 거대 지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 산업집적,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 “5+2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5대 광역경제권은 충청권(대전, 충남·충북), 호남권(광주, 전남·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강원도)으로,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설정하였다.

7월 발표한「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에서는 3월의 전략(안)에 이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여 도·농통합적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 전략」에

서는 규모의 경제, 지역간 연계·상생, 지역별 특화, 지방 분권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권역별 개발 과제 중 충청권의 연구개발(R&D) 허브 및 정보통신기술(IT)·생명기술(BT) 산업 중심지, 호남권의 중국 시장과 연계한 산업·물류거점 개발, 신재생 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강원권의 바이오 메디컬 용·복합산업 육성 등이 농식품·농촌 부분과 관계성이 높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국토 및 농지 이용 관련 정책 추진 동향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는 (가칭)「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토지은행 제도를 제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제도는 토지은행이 개발예정지나 가능지를 매입 또는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수급관리의 성격을 보인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중 농림수산식품부와는 토지은행의 농지취득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토지은행 사업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은행과 토지은행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0월 30일 회의에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 측면의 규제 개선, 토지공급능력 확대, 토지이용절차소요기간 단축 등이었다. 이 중 농지이용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경자유전 원칙 범위 내 한계농지 소유·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소유규제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올해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인 농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 지정 의무 폐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공장 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 폐지 등이 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농식품 수출 및 정책 동향

농식품 수출액 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2008년 10월까지의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수출 추이를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평균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가공식품의 비중이 신선농산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심의 수출 구조가 점진적인 다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2005년 상반기 46.5%에서 2008년 상반기 32.6%로 감소한 반면, 러시아·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27.5%에서 35.0%로 증가하였다.

수출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국제 곡가 및 유가의 급등은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나, 하반기 원자재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환율은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약만두 파동, 중국 유제품 멜라민 사태 등으로 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를 증가시켰다. 일본 등 특정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는 점도 앞으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수출 목표를 기존 4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홍보·판촉 확대,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30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50개의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동일품목 선도조직을 통합하여 마케팅 보드화를 유도하는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추진 계획도 수립·추진하고 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질소질 화학비료, 국산 녹비작물로 대체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질소질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로 널리 알려진 녹비작물 중, 헤어리베치를 국산화하여 내년부터 보급을 시작, 2012년까지 전국 보급을 목표로 종자 대량 생산체계에 돌입하였다.

최근 친환경농업 확대와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비료를 대체할 녹비작물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는 매년 종자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국내환경에 적응성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국산품종의 육성 및 종자 생산 보급체계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국내산 헤어리베치 “베치 1호” 품종을 개발하고 신개발 종자의 빠른 보급을 위하여 각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소에서 내년 2톤의 종자생산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4,500톤의 종자를 생산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된 “베치 1호” 종자를 이용, 겨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논 22만 5천ha에 녹비작물을 재배하게 된다면, 녹비종자용을 지출되는 외화를 최대 159억원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비료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겨울철 푸른 들을 볼 수 있게 됨으로서 경관조성에 의한 국민정서 함양 및 토양유실을 막아 환경 보전도 기여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 환경생명공학과 박성태 과장은 “녹비작물 종자를 대량으로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교토협약에 의한 탄소가스 저감의 효과로 탄소배출권 획득에도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과일의 묘목 생산·판매도 관측 실시

농업관측 중 과일관측 분야 개선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수묘목의 품종별 생산 및 공급 동향을 과일 분야 농업관측에 포함하여 과수묘목 생산농가와 과수재배농가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과수농가는 품종별 과수묘목의 생산과 수요정보 부족으로 과일 생산에 대한 장기 예측이 어려워 특정 과수품종에 묘목 수요가 집중될 우려가 있었으며, 묘목 생산자도 농업인의 과수묘목에 대한 정확한 수요 정보가 없어 신품종 개발 및 적정 묘목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과수묘목의 품종별 묘목수, 당해 연도

과일생산량 및 가격전망 등 묘목부터 최종 생산물인 과일까지 일관된 관측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당해 연도 생산뿐만 아니라 품종별 장기생산 전망을 하는데 묘목생산자, 과일생산자,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수묘목의 관측은 2009년부터 6개 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에 대하여 품종별로 관측을 실시하여 묘목 생산자,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묘목 주정식기인 매년 11월 과일관측월보를 통하여 제공된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고추장, 인삼제품, 된장 2009년에 국제식품 공인 전망

김치(2001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고추장, 인삼제품, 된장도 내년에 국제식품으로 공인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과 인삼제품 규격안이 7단계, 된장 규격안은 4단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Codex 규격은 8단계 심의를 거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Codex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Codex 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김치를 국제식품 규격으로 통과시켜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유사 제품과 차별화된 규격을 제정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식품은 외국의 바이어나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수입국의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무역분쟁시 분쟁해결의 국제적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추장은 우리 말 그대로 “Gochujang”이라는 영문명으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어 김치(Kimchi)에 이어 우리나라 고유명칭에 의한 국제 식품규격 등록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고추장은 고추에 소금과 식초를 가해 매운맛을 내는 핫소스와 유사한 정도로만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규격화 과정을 통하여 고춧가루와 전분질을 주원료로 미생물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식품임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인삼제품은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어 식품으로 소비하는 고려인삼과 화기삼(花旗蔘)을 대상으로 건조품, 농축액 및 농축분말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규격을 마련하였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인삼을 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 인삼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제 식품규격으로 채택되면 인삼이 식품으로 공인되어 향후 수출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된장은 우리나라 된장과 비슷한 다른 나라의 제품을 포함하는 발효 콩 페이스트(fermented soybean paste)라는 명칭으로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번 채택된 규격안은 분석법, 첨가물 및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속절차로 내년 총회에서 5~8단계가 동시에 심사될 예정이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적용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12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은 먼저 적용되기 시작한 쇠고기, 쌀 등을 포함하여 모두 5종으로 늘어났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쇠고기의 기준을, 배추김치는 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 대상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문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소,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이다. 식사류와 함께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100㎡ 이상 규모의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주메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집단급식소는 1식 3찬 등의 개념이므로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 대상이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이거나 양념을 혼합한 뒤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제도 적용에 대한 음식점의 적응을 위해 1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 이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㉞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